

에스겔4장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또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저희가 새벽 미명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 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자유한 자로서 묵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게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살리는 영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영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증거 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축복된 자리에 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정치가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복자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에스겔2장 들어갑니다.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 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자손 나를 반역하든 반역 잘 하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 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 하여 이 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들은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라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인자야 찢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니가 정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 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그들이 듣든지 그만 두든지 간에 너는 네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 함이라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게 말한 말을 들어라 너는 그 반역 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준 것을 먹어라 내가 보았더니 한 손이 내게 뻗었는데 보라 그 안에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에는 글이 쓰여 졌는데 애가

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져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여기 인자라고 부릅니다. 성경 가운데 사람에게 인자야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딱 한 번 있구요 에스겔에게만 그랬습니다 에스겔에게 거의 100번 좀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 인자야 인자야... 인자는 아주 사랑스러운 호칭 이죠 주님께서 초림 하셨을 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 날 것이다 자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럴 때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자신을 인자라 이렇게 말씀했고 자신은 완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인자라 그럴 때는 각별히 사랑함으로 부르는 호칭인 것을 알 수 있고 영으로도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그럴 때 son of man 그럴 때 그 son이 s자가 소문자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그럴 때는 Son이 s자가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인자로 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인자의 표적이. 주님이

오실 때 표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인자야 그러면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자신 안에 들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성령이 있어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마다 저기 앉아 있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 왔나 그랬더니 목사님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머리에만 있습니다 머리에만 있는게 답답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가 새벽기도에 나와요 귀한 형제 다 분명히 주님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머리에만 있다구요 머리에만 안 됩니다 성령

이 들어오셔야만 그래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설교 말씀이 들리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이 아니죠 잠깐 동안 쓰임 받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주님이 오실 때 까지 잠깐 일 하실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었는데 그가 범죄 한 이후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총만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우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에서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의 날 까지 우릴 인쳤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슬퍼하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가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질 때 성령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전에도 얘기 했죠 여러분께 한 가지 내가 슬플 때 주님께 내가 왜 슬퍼해야합니까 내가 평강이 없을 때 내가 왜 평강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 할 때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바로 내가 슬프다 내가 너 때문에 슬프다 중국에서 선교한 허드슨 테일러가 한 동안 우울증에 걸렸는데 금식하면서 기도 했답니다 왜! 그리스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성도들일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주님이 안에서 우울증이 걸린 거죠 진짜 그 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러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너희는 죽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죽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육신이 죄를 지어도 이것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죽은 몸 안에 살아 있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 했죠 우리는 좀비 같은 사람이다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이 그 선지자에게 들어갔다는 말을 이렇게 증거 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11절 보면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본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다윗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즉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증

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증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를 배워도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고난은 초림입니다 그렇죠 초림 다가올 영광은 재림입니다. 영광을 미리 증거 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 하던 것이니라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증거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반역 잘 하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항상 말씀으로 하시고 사명을 맡겨 주고 어디론가 보내고 또 누구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도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로 보내고 너를 파라오에게 보낸다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파라오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내가 말했다고 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말하라는 거죠 그대로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왜 불렀을 까요 누구에게로 보내고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즉 땅 끝까지 가서 내게 증인이 될 찌니라 내게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 이걸 점점 가까운 곳으로부터 점점 끝까지 가는 것 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아 놓고도 순종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것 뿐이죠 특별히 그러나

사도 같은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사도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각자 믿음의 분량의 만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죠 다 다릅니다 육신의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여럿 있어도 부모가 이렇게 볼 때는 그 그릇을 알아요 그릇을 압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무조건 축복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릇을 보았습니다 단은 저주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복대로 그 사람의 그릇대로 그 사람의 마음대로 기도하지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그리고 일을 맡기죠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실 작은 일에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목회지도 그래요 사람이 작을 때 충성하기 힘들죠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그런데 지상에 사는 일은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길 때는 통치자로 맡기니까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 할 수 없다 그 영광 글로리(glory)는 통치자예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상상이 잘 안 가죠 보통 사람들은 이게 안가니까 안 믿어지니까 헛된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부르심 목적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선택한 그릇이다 그대로 됐죠 그가 감옥에 가가지고 왕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그를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때 하늘에 올라갔죠 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거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렇게 하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 만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이 땅에 초림 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 간 다음에 그랬죠 감옥에 갇힌 다음에 말씀했죠 주님의 사명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에스겔선지자 만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

을 때 피 흘려 죽으시기 직전까지 그 분의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보낸거요 보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12제자를 부를 때도 다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이걸 이스라엘에 천국이 가까운 거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와 가지고 페니키아 여인 이죠 스로보니게가 페니키아입니다. 그 여인이 와서 내 딸이 심히 마귀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옳소이다 만든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네 믿음이 크다 그 순간에 고침 받았습시다 그 여인은 주님이 앞으로 자신까지위해 죽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네 믿음이 크다 그런 거죠 믿음이 뭐죠 앞으로 될 것을 믿는거 아닙니까 부스러기를 달라 이거예요 지금 이 빵을 먹을 수 없습시다 그러나 부스러기를 달라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부스러기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고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잠깐 짚린 데 접붙임 받은 건죠 자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가 자고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우린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고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감사해야 되요 저들이 꺾이지 않을 때 우린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뻥뻥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희는 주 하나님께서 이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도 말이죠 뻥뻥하다는 말씀을 쓰셨어요 우리도 많이 그런말 많이 쓰죠 저 사람들 뻥뻥하다 말이지 얼굴이 푸겁다 마음이 악하다 말이죠 마음이 악하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뻥뻥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뻥뻥해요 얼마나 뻥뻥한지 몰라요 그들의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므로 자기들이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을 통하여 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훼파시키고 지성소를 없애고 법궤도 없애 버리고 아무 것도 없죠 이제 제사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뻥뻥하게 죄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 가서 사람들과 얘기 할 때

우린 이스라엘 가서 다니면서 그들과 얘기한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시다 얼마나 뻥뻥한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느냐? 물었더니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누가 그러더냐 물었더니 랍비가 그러더라고 해요. 랍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랍비들이 얼마나 뻥뻥합니까 그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뻥뻥한게 그 랍비들이 뻥뻥해서 그런거거든요 제사장들이 뻥뻥해서 그런겁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던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지자가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그 때 선지자하고 달라요 지금 뭐 예언하면 좋은 건만 취하면 되요 좋은 것만 취하면 되요 데이빗 오어같은 사람이 한 것도 틀린게 있습니다 좋은 것만 취하면 되요 나는 거기서 그 분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취했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아 그 분이 또 뭐라는 가면 환상을 봤는데 청황색 말이 간다고요 환란이 왔다는 거거던요 잘못된 거예요 이걸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것만 취하면 돼요 한국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친건 너무 좋더라구요 그 분을 통해서 시킨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완벽한 게 아니야 해 아래서 좋은 것을 취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어요 우린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라면 우린 받아들일 수 있죠 누가 그렇게 용감하게 다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이루어 지지않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국 민족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음란이 있다는 거메시지 그것만 받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있다는 것 주의 종들에게 하는 음성은 정말 선지자적인 얘기죠. 메시지 그것만 받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아닙니다 아직 환란을 지나는데 아니거던요 청황색 말은 휴거되고 나서 그 때 나타나는 거거던요 잘 못된 거예요 잘 못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유튜브까지 올라와있더라구요 보니까 주 하나님이 ~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복 받은 민족이 아니니까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 민족은 그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발버둥 치다가 인생이 허

무하다 한국 민족의 그 문화를 보면 인생의 무상함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이 한국 민족의 복음
이 들어 올 때까지 한국 민족의 애절한 거 특별히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우리 조상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 분들의 애환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때 우린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의 말씀이 들리고 이게 얼마나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 때 이스라엘이나 지금 은혜시대의 사
람들이나 똑 같이 복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5절에 보니
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러면서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야 반역하는 집이니까 듣든
지 안 듣든지 그래도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들어도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지 이렇게 말했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들을 사람인지
안 들을 사람인지 알아요 구분이 되요 이게 영 분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들을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다 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같은 사람하고는 일체 얘기 안해요 가만히 있어요 할
필요 없어요 얘기해 봤자 싸움만 됩니다 아무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부르짖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 하셨다 말씀 하셨다 그럴 때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구나 하나
님 말씀하셨데 이걸 기억 하는 거죠 그런데 밥 먹듯이 거역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가 선지자가
얘기했다 이렇게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
죠 기억합니다 다 그런데 안 믿죠 거역을 하죠 그 때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
게 해야만 앞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떨어질 때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 신약시대 사람들 복음
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거죠 지
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길에서 또는 버스 정거장에서 막 합니다 막 외쳐서 복음을 전합
니다 사람들이 안 듣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한국 가서도 마로니아 공원에 거기 대학가가 있습니다 대학로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대학생들이 그렇게 완악할 수가 없어요 안 들어요 막 소릴 지르면서 복음을

전했죠 공원에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더라구요 갈 때가 없으니까 전부 확장실로 다 기어들어 가더라구요 아 잘 됐다 성령께서 거기로 가라고 그러더라구요 들어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하면 여러분 비는 피 할 수 있어도 앞으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쩔 그런 말이 나오는지 나도 참 그 때 생각하면 그러면서 전도하고 양복입고 갔는데 비를 흠박 맞으면서 걸어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지하철에 가면 말이죠 지하철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뽁뽁이 들어찼죠 거기 타고 전도 하는데 아무리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꼼짝 말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려고 층계를 사람들이 내려와요 짹~ 뽁뽁이 내려 와요 그러면 내가 딱 서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버스간에 타고서도 그 다음에 중국 갔다 올 때 아 중국서 복음 전하면 큰일 나잖아요 김일성 수령이 만든 그 식당에 들어 가서 밥을 먹고 오다가 나오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간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니까 우리 수령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수령이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그러고서 막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다가 이제 올 때가 되어 가지고 올 때가 되어 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떠나기 전에 안전벨트를 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성령께서 그러세요 너 여기 왜 왔니? 여기 왜 앉았냐? 뭐하러 왔냐? 일어서라! 여기 에스겔에게도 일어서라고 되어 있죠 벨트를 풀고 일어서 가지고 앞으로 탁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같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달려드니까 그 목사님이 막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는데 입 닥치라고 소릴 치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목사님 한테도 성령께서 일어서라고 그랬데요 그러구 막 이러구 있는데 내가 뽁뽁 일어서더라요 아이구 내가 놓쳤구나 그랬다는거예요 이게 인자야 일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어서라 어디서나 일어서라 나이가라 갔을 때도요 우리가 저 캐나다 집회갔을 때 제가 통역하러 갔었어요 미국 목사님 통역하러 갔었는데 미국 목사님이 나이가라 구경 못했다고 갔어요 그래서 나는 봤는데 안 간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가래요 왜 가라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 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나이가라 폭포강에서 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표를 사려고 줄을

짜 서 있어요 균중이 있어요 나는 구름다리를 이렇게 지나는데 밑으로 짝 벌떼처럼 있어요 줄 서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다가 거기서 설교를 했죠 왜? 개인 전도를 하니까 전도지를 찢어버려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 있죠 전도지 안 받아요 찢어버려요 얼마나 강박한지 알아요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보면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했죠 나이가라를 구경하지 말고 나이가라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이죠 그냥 5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같이 가든 미국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구요 그 분도 그냥 수 만명씩 집회를 하던 분이예요 그 분이 필리핀에서 말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분은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를 해요 거리에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막 외치고 설교해요 하루는 아주 추운 겨울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아 오늘은 허탕쳤구나 그랬어요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누가 자기를 찾아 왔어요 모년 모월 모시에 당신이 이 주유소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설교할 때 나는 주유소 안에 있었는데 뭔가하고 들었다고 그러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습시다 그러더라요 한 사람 구원이예요 요즘 마이크 들고 거리를 다니며 설교하는 사람있죠? 제가 그걸 4년을 했거든요 LA 다운타운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듣나? 그렇죠 아니예요 들을 사람 있어요 한 마디 듣는데 그게 귀에 박히는 겁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습시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듣는 사람들이 절대 핑계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방송에도 막 하죠 교회에서도 하죠 길 거리에서도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보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 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 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증거를 가져오면 꼼짝 못합니다 너 사람 죽였지 아닙니다 그러죠 알리바이를 증거를 가져오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증겁니다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그리스도를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해도 되고 직장에 오는 사람에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최소한도 여러분이 전한 사람들 만큼은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심판 받을 때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게 증인이 된다 내게 증인이 된다 내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얘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리라 쉘~비(shall be)그랬어요 쉘비(shall be)라는건 I will make you,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죠 백보좌 심판 때 죄인이 나는 예수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변명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잖아요 라디오 TV 뭐 엄청나게 하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 앞으로 칼에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시편 33편에 가 보면 칼에 쓰러져요 또 짐승에게 먹히게 되요 또 이스라엘 산이 황폐해 아무도 지나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삭막해 진다고 그랬어요 그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꺼예요 우리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지 있었지 아 그 때 우리가 선지자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어 어찌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까 그 때 가서 가슴을 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디도 한 마디도 나는 억울합니다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인자야 찢레와 가시가 너희와 함께 있고 니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 하지도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찢레와 전갈이 뭐죠? 찢르는거 복음을 전해 보세요 찢릅니다 팍팍 찢릅니다 말로, 핍박을 합니다 놀랄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 거리에 나가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막 찢릅니다 아이 헛 지저스(I hare Jesus!) 그런 사람도 있구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니까 막 끓어 엎드려서 영영 울면서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더니 나

중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주더라고요. 칼을 꺼내 줘요 그러면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맥아더 팍(MaAthur Park)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어디서 나를 불렀나 봐도 아무도 없어요

저 쪽에 마약하는 친구가 나를 불려요 나를 알아봐요 이 친구는 전도를 했던 사람이예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몰랐죠 누가 누군지 그런데 마약하다가 또 마약을 시작했어요 정말 참 마약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먹고 살게 없으니까 그 날도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누굴 털라구 누굴 털까 이러구 있었는데 제가 막 그때 지나갔어요. 깜짝 놀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실 이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짓 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마음을 바로 잡겠습니다 영영 울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마약을 해도 나 같은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그 날 그 시에 보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회개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게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이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죠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 꺼번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찢립니다 가시 전갈 뱀과 전갈이 있다고 그랬죠 광야 같은 곳입니다 스테반이 설교할 때 그랬죠 우리 조상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거기는 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 함이라 내 말을 그랬습니다 말을 그대로 전하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 나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누굴 죽여서 사형에 처해 질 텐데 당신 친구가 내가 죽었다 그래고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되셔서 당신이 죽을 그 자리에서 죽으셨는데 그 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몰라도 복음만 알아 가지고 외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에스겔은 한 번도 적당히 말 한적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

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8절 보니까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말한 바를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반역하지 말라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너도 반역하면 안된다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그 분이 반역할까 반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네 입을 벌리고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지금 이 시대는 반역 하는게 일반화 되어버렸죠 주의 종들이 그래서 배교라고 그러죠 배교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별 소릴 다 합니다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 때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입을 벌리라고 받아먹으라고 그랬죠 받아먹어야만 된다 그래서 뭘 받아 먹을까 딱 보았더니 9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었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손을 딱 뻗었는데 보니까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이 뭐죠 시편40편에 나오죠 그 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40편 7절에 나오죠 나에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 이런 얘기죠 결국 두루마리 책은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뭐죠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있죠 옛날 보다 더 많이 있죠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정말 그 때는 환상으로 보여줬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다 먹어라는 얘기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역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요한 계시록을 배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주일마다 들을 때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받아먹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완전히 받아 드리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완전히 마음에 받아드리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뭐가 들어있나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쪽에 글이 쓰여졌는데 그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져 있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요 이 성경에 뭐가 쓰여 저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심판의 메시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영원한 불 못에 들어가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애가 아닙니까 평생을 불 못 속에 살아요 혼이 안 죽기 때문에 살아 있는 혼이기 때문에 육신은 다 섞어 문드러졌어도 혼이 얼마나 고통 받겠어요 육신이 아픈 것도 이 혼이 고통 받는 거예요 혼이 고통 받는 거예요 의사들은 육신하고 신경만 알지만 이것이 바로 혼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혼이 죽게 되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러죠 내 혼이 죽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혼이 아픈 거예요 이 불 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곳인데 어떤 사람에게도 거기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말씀을 봐서 하나님께 와서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 이 메시지에요 이게 이 속에 엄청난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강단은 설교 할 때 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설교하는 겁니다 주일 날에 또 구원 받은 사람은 또 구원받은 사실, 이 복음이란게 말이죠 아무리 들어도 세상 죄를 위해 독생자를 죽였다는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기쁜거예요 왜 얼마나 기쁜겁니까 복음이니까 나 구원받았으니 필요없어 그게 아니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주일 예배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요 우리가 저 사람 꼭 듣게 해 주세요 꼭 듣게 해 주세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모두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예요 우리의 책임이 큼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장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먹었습니다 이 말씀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을 다 먹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서 이 교회 성도들은 성경말씀을 다 먹어서 반역하지 않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